

사업하기 불편한 나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krhee@hotmail.com

제프리 존스 주한 미(美)상공회의소 전 회장이 유창한 한국말로 토해 냈다.

"한 미국친구가 미국에서 사업하기가 불편하다고 말해 한국에서 사업해보면 진짜 불편한 게 뭔지 실감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대기업 회장 상당수가 뇌물사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할 처지가 되자 이들 비자 때문에 미대사관에 부탁하는 게 일이 됐다."

미국과 한국을 소상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가 하는 말이어서 놀랄 일은 아니었다.

한 기업의 사장이 일간지에 국제청장과 재경원장관은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는 광고를 내는 일이 있었다. 이 사장은 정치인과 관리와 세리의 괴롭힘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기업 문을 닫겠다고 절규했다. 사실 부패한 정치인과 공무원을 추방하고 수많은 비합리적 규제를 철폐하고 보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풍토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이사장의 말대로 "약하고 덜 배운 백성의 기름을 짜고 피를 빨아 부패한 정치권, 고급관료, 재벌을 보호하고 살찌우게 하며 엄청난 치부를 해왔음을 반성해야 한다." 오죽하면 이런 절규가 나오겠는가.

그래서 지속적인 기업의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기업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기업의 활동이 왕성해야 나라가 번영한다.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안심하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물론 묵묵히 정직하게 고생하는 공직자들도 많다. 하지만 떡구름같은 금융비리 뉴스는 오래전부터 언론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또 구질구질하게 은행원들의 시중을 들어주면서 은행돈을 빌리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사채가 낫다는 한국의 실정을 반영하는 기업인의 실토도 기막히다.

필자의 대학친구이며 여성의류 중소기업자를 경영하는 한 기업가의 탄식이다. 수출의 경우와 달리 내수시장에서는 '무자료거래'가 대부분이다. 그가 혼자 아무리 자료를 발생시켜

뒤통수 경영을 하고자 해도 역부족이다. 내수시장을 포기하든지 기존 관행을 따르던가 둘 중의 하나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들이닥친 세리에게 억울하게도 거액의 탈세추징금을 뒤집어쓰게 됐다. 창업 5, 6년만에 올 것이 온 것이었다. 막대한 탈세추징금을 내고 사업을 접든지 또는 세리와 협상(?)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든지의 선택이었다. 양식과 원칙을 지키고 싶었던 그였지만 선택은 물어 보나마나 였다.

사실 따지고 보자면 어디 공직자와 세리와 금융권뿐이라. 기업 내부에서도 바르고 성한 구석이 없는 것 같다.

주한외국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성금, 급행료와 뇌물이나 향응 같은 각종 준조세와 강경한 노조활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준조세를 요구해 온 기관으로는 민간단체, 협회, 언론매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다

그들이 지적한 '현재 한국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준조세, 강경노조 등 노사문제, 기업과 금융의 회계 투명성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기업과 금융구조조정과 체질 개선, 관료의 구시대적 사고와 행동변화, 노사분규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이 많이 꼽혔다.

아무튼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려면 기업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만연한 불투명과 부조리를 하루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꿈수와 편법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야 한다.